

# e러닝도

## ‘나눔’이 필요하다

글 / 손연기 한국정보문화진흥원장



“급식 시간에 육개장은 중불에서 계속 끓여야 합니다”

푸드서비스 업체인 A사의 지식경영시스템에 가면 이처럼 전국 500여개 급식 사업장에서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올린 ‘맛있는 급식’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경할 수 있다.

맛있는 식사를 위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소한 불편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방법 개선책도 수백건 올라 있다. 이를테면 “삼겹살 메뉴에 곁들여 나오는 쌈용 상추가 낱장으로 흩어지기 쉬워 배식이 어려우므로 삶은 양배추로 만든 끈을 이용해 몇장씩 묶어서 배식하면 좋다”는 식이다. 이 아이디어는 곧바로 전국 사업장에서 채택됐다.

A사의 이같은 노력은 지식경영의 전형을 보여준다. A사의 임직원들은 실시간으로 e러닝의 학습효과를 얻는다. 꼭 교재 펴들고 책상 앞에 앉아야만 e러닝인가.

A사는 이처럼 육개장에 ‘지식 양념’을 넣은 덕택에 매출이 지난 1년 동안 5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을 생산적 지식으로 활용하는 지식경영의 효과는 이처럼 크다.

위의 사례를 보면 시스코시스템즈의 존 챔버스 회장이 인터넷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를 뒤흔들 키워드로 e러닝을 꼽은 것도 무리가 아니다. 챔버스 회장은 수년 안에 사이버 교육이 보편적인 교육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봤다. e러닝이야말로 차세대 지식경제를 이끌 견인차인 것이다.

### 정보격차 해소하면 국가경쟁력도 커져

e러닝의 국제 표준인 SCORM(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을 만든 미국의 ADL(Advanced Distributed Learning)의 비전은 간단명료하다. “개인의 요구에 맞춰 언제 어디서나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e러닝의 학습 장소가 반드시 학교나 가정일 필요가 없다. 공장이나 주방, 작업 사무실, 심지어는 이동 중이거나 화장실에서도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PC 기반만의 e러닝을 염두에 두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이다.

휴대폰에 카메라와 MP3, PDA 기능이 추가됐듯, 앞으로는 단말기의 발전에 따라 학습 방식 역시 진화하게 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이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과 바로 맞물린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 즐겁고 편한 문명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6월9일 정보통신부에서 열린 ‘u코리아 추진전략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도 “향후 IT가 펼치

는 세상에서 국민 생활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에 ‘모두가’를 추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e러닝의 이념은 누구나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웃 일본의 예는 우리를 자극한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최근 일본 정부가 IT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일본 전역에 2000곳에 달하는 인터넷교육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산업인재 칼리지’라고 명명된 이 센터는 인터넷을 통해 IT와 외국어를 익힐 수 있는 e러닝 센터로, 산·학·관 공동으로 설립된다. 정부가 자금을 대고 도쿄대학, 마쓰시타(松下)기업, 상공회의소, 중앙직업능력개발협회 등 대학과 기업들이 장소와 강의 및 교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센터는 역, 빌딩, 도서관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되는데 PC 활용부터 고급 과정인 정보처리 기술까지 다양한 IT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해 외국어 등을 배우는 e러닝은 일본에서 현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데, 관련 시장 규모는 2006년 2,000억엔(약 2조원)으로 2001년보다 7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이 이렇게 서둘러서 e러닝 센터를 세우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 계층간에 존재하는 정보격차 현상을 이렇게 해소하지 않으면 결국 국가경쟁력에 커다란 훼손이 된다. 센터의 수업료가 시간당 1,000엔(1만원) 이하로 억제되고, 실업자나 미취업자에게는 수업료가 지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학습기회 격차 줄이려면 e러닝 센터 더 생겨야

물론 이러한 e러닝 센터가 일본에서 먼저 실시된 것은 아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모든 국민이 지역, 소득, 신체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읍·면·동사무소 및 마을 복지회관 등에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역정보접근센터 구축은 지난 2003년까지 253개 지자체에 모두 986곳에 이른다. 비록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2,000곳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보다 훨씬 먼저 e러닝 센터의 기반을 만들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정보화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습득 및 활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30곳에 ‘IT 플라자’라고 하는 ‘다기능 정보이용센터’ 구축을 지원한다.

IT 플라자에는 정보화 상담실, 주민 e학습방, 청소년 IT 교육장, 멀티미디어 제작 실습실, 디지털 자료실 등의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부산 지역은 IT를 활용한 영상제작 기법을 교육하는 영상미디어 특화 센터로, 성남 지역은 주부 및 고학력 미취업 여성들에게 IT 교육을 실시하는 여성 e비즈니스 특화 센터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센터’로 특화할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빈곤의 정의와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최상위 10% 고소득층과 최하위 10% 빈곤층의 교육비 지출(자녀 1인당)은 7배 이상의 격차가 난다. 보고서는 ‘고소득층 자녀는 높은 교육비 투자를 통해 더 높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고 나중에 고소득을 얻을 능력을 확보한다’며 “빈부격차에 따른 교육의 차이가 결국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교육비 지출의 격차, 학습 기회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대안은 e러닝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층 자녀들에게는 PC 구입이나 초고속통신망 이용 등의 환경이 모두 버거울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때문에 IT 플라자가 필요한 것이다.

e러닝에도 ‘나눔’이 필요하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e러닝 센터가 생겨야 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소홀히 여긴다면 일본에게 IT강국의 자리를 내줄지도 모른다. 